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현재 인력 활용도 높여야”

위생사 수급 인력·수적 아닌 업무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장기 근무 위한 제도 정착 필요...직업미래상도 제시돼야

1. 연구의 목적

보건진료 영역에서 노동 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정도로¹⁾ 노동 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 진료 영역은 즉석에서 양성해 낼 수 없고, 훈련 및 양성에 일정시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국가가 의료법 및 기타 법적 면허 및 자격을 통하여 이들에게 독점력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이 어려운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²⁾

그러므로 보건진료 영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건진료인력 계획과 보건진료 인력 정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장·단기적 의료 인력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인력수급이나 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진료 영역의 공급은 과잉이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진료 영역이 손쉽게 양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6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구강보건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강보건 인력이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구강보건진료영역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



심포지엄에 참석한 청중들이 발제자의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 등이 있으며,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등의 구강보건진료영역은 치과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³⁾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⁴⁾ 1965년 연세대학교 의학수련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위생사 양성 기관이 생긴 이래로 2002년 현재 27개의 3년제 대학과 1개의 4년제 대학에 매년 2,55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현재 20,320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양적으로도 많은 증가를 보여왔다. 치과위생사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극히 저조하여 과거연구들에서는 면허 취득자 중 활동하

1) Alan L. Sorkin, Health Manpower: An Economic Perspective, Lexington, Mass., D.C. Health & Co., 1978, p.1.

2) 장현숙외 3인, 보건인력수급 및 관리체계, (서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p.2.

3) 문혁수, 치과의사수급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4, p.1.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는 인구가 적고⁵⁾ 업무 또한 규격화되지 않아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인 예방치치 및 구강보건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⁶⁾. 이런 이유에 의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잦은 이직을 야기하고, 직업의 평균 수명도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다.⁷⁾ 그러나 1997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취업률이 증가되었으며 직업수명이 연장되고 있다.⁸⁾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이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고⁹⁾ 치과위생사는 치과 병·의원의 인력수요에 의하여 공급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사 수가 급증한¹⁰⁾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원에서는 자격을 갖춘 구강진료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¹¹⁾ 치과위생사 인력 수급은 단순히 수적인 문제로 다를 것이 아니라 그 활용 즉 업무의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업무와 이직, 평균 직업수명 등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 인력 공급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들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치과의료환경 변화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전문적 활용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¹²⁾¹³⁾ 일부 연구들도¹⁴⁾¹⁵⁾¹⁶⁾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수급을 위한 연구이기보다는 전체 구강보건인력의 수급을 논의하는 과정에 부분

적으로 연구되었기에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과 활용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치과위생사의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활용 및 수요 체계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인력의 전문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설문을 통한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2.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중 치과위생사는 2001년 10월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소재지가 파악된 치과위생사중 보건기관 근무자와 치과대학병원 근무자를 제외한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1,400여명의 치과위생사를 각 시도별 비율로 임의 추출하여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치과의사는 2001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등록된 11,000여 개의 치과병·의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1,100 개소의 치과병·의원을 각 시도별 비율로 임의 추출하여 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5) 신승철, 구강보건 인력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세미나집」, 제6권, 1992, pp.211-218.

6) 양정승, 치의원근무 치과위생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18권, 1993, pp.273-290.

7) 이재현,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아사랑」, 제20호, 1995, pp.2-5.

8) 정재연(1),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월간 치과연구」제43권 제2호(1998,2), p,52.

9) 위의 논문.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치과의사 면허등록상황(보건복지통계연보 재인용), 2000, p.224.

11) 정세환, “구강진료보조인력의 바람직한 수급을 위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진료 보조인력의 바람직한 수급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02., 건치신문, “보조인력난 해결방안은 없는가?”, 제79호, 2000.3.24.

12) 오정숙, “치과위생사 수급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워크샵보고서, 1989, pp.209-240.

13) 오정숙, 치과위생사의 취업현황분석 및 수급에 대한 검토,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3.

14) 문혁수, 앞의 논문, 1994.

15) 문혁수, “21세기 한국 구강보건인력관리,” 대한치과의사 협회, 구강보건인력 국가시험제도 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1997. 2. 27.

16) 장현숙의 3인, 앞의 논문, pp.105-111.

2.3. 조사내용

치과위생사는 일반적 사항 및 이직실태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치과의사의 경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항과 진료기관의 인력보유분포 문항과 치과위생사에 관한 문항,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및 기타 인력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3. 치과의료현황

3.1. 치과의사

3.1.1. 치과의사의 양성

1946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개설된 이래 총 11개 대학에 치과대학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 전체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760명이다.¹⁷⁾ 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국내 의료인력의 수급정책에 의해 대학 입학정원이 사전에 반영·조정되고 있다.¹⁸⁾ 1952년에 최초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실시되어 2000년까지 총 8,188명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 기간 중 1981년부터 1990년까지 383.1%의 높은 증가율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경북대학교를 비롯하여 6개의 치과대학이 신설되어 총 입학 정원이 400명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치과의사 평균 합격률 93%를 적용하고, 치과의사의 은퇴율과 사망률을 기초로 치과의사 증가현황을 추계하면 2005년에는 20,501명, 2010년 23,734명, 2020년 30,418명이다.¹⁹⁾ 199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16,790명의 치과의사 중 치과병·의원에 62.0%, 일반 병원(군병원포함) 10.9%, 보건소에 4.9%가 취업하고 있어 보건소를 포함한 진료부분에 가용되는 인력은 77.8%이었다.²⁰⁾ 이

표 1. 치과 병·의원의 증가 현황

(단위:개소)

연도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증가된 기관수	연도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증가된 기관수
1974	3	1,566		1988	6	3,999	409
1975	3	1,611	45	1989	7	4,536	538
1976	4	1,660	50	1990	6	5,286	749
1977	4	1,720	60	1991	6	5,952	666
1978	5	1,785	66	1992	7	6,632	681
1979	4	1,901	115	1993	7	7,269	637
1980	3	2,025	123	1994	8	7,718	450
1981	3	2,155	130	1995	12	8,232	578
1982	3	2,317	162	1996	15	8,807	518
1983	3	2,519	202	1997	20	9,280	478
1984	4	2,749	231	1998	33	9,742	475
1985	4	2,994	245	1999	44	10,204	473
1986	4	3,274	280	2000	60	10,592	404
1987	4	3,592	318	2001*	68	10,746	16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974~2002.

*2001년 3/4분기까지의 통계

를 기초로 진료분야에 가용될 것으로 추계되는 치과의사는 2005년도에는 15,950명이고, 2010년도에는 18,465명이며, 2020년에는 23,665명이었다.

3.1.2. 치과병·의원의 증가 현황

치과위생사들의 대다수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며, 종합병원의 치과나 치과대학병원인 경우 근무 치과위생사의 수가 전체 인력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뿐 아니라 이직률 또한 미미하여 전체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치과진료기관의 증가현황에서 제외하였다.²¹⁾ 1973년까지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따로 분리되어 신고되지 않았다. 1974년도에 3개의 치과병원이 개설되었고, 2001년 9월 현재 치과 진료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수는 치과병원 68개기관, 치과의원 10,746개기관이다.²²⁾ 2000년 현재 총 치과의사 면허자는

17) 문혁수, 앞의 논문, 1997. 2. 27., p.18.

18) 백화종 외 1인, 치과의사인력 수요와 공급 추계,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36.

19) 장현숙 외 3인, 앞의 논문, p.72.

20) 위의 논문, p.71,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자료, 1999.

21)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자료, 기관별 취업자수, 2001.

22) 보건복지부 통계연감, 1974~1998.

보건복지부 인터넷자료실, <http://www.mohw.or.kr>. 2001. 9.

표 2.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 현황

(단위:명)

학 교 명	입학정원	치과위생과 개설년도
1. 대구보건대학	160	1977
2. 신구대학	80	1977
3. 원광보건대학	120	1977
4. 광주보건대학	120	1977
5. 대전보건대학	120	1978
6. 진주보건대학	120	1981
7. 동남보건대학	80	1982
8. 김천대학	40	1983
9. 마산대학*	160	1984
10. 동우대학	160	1985
11. 광양대학	120	1994
12. 수원여자대학	160	1994
13. 경북대학	160	1995
14. 제주관광대학	80	1995
15. 극동정보대학	80	1995
16. 목포과학대학	80	1996
17. 서울보건대학	80	1996
18. 삼육간호대학	50	1996
19. 여주대학	80	1996
20. 수원과학대학	80	1996
21. 가천길대학	40	1997
22. 안동과학대학	40	1997
23. 전남과학대학	120	1997
24. 신성대학	60	2000
25. 포항1대학	40	2001
26. 경북외국어테크대학	40	2002
27. 동주대학	40	2002
28. 연세대학교	40	2002
계	2,550	

출처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자료

*2000년도에 20명 증원

17,552명이며, 치과진료기관 수는 10,652개 기관이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치과의사 면허자의 60.7%가 치과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총 면허자수에 치과 병·의원 개설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2005년에는 치과 병·의원 수는 12,444개 기관이고, 2010년에는 14,407개 기관이며, 2020년에는 18,464개 기관이었다.

3.2. 치과위생사

3.2.1. 치과위생사의 양성 현황

1965년 치과위생사 양성기관이 개설되어 1967년에 처음으로 4명이 배출되었으나 1971년에서야 비로소 의료보조원법 규정에 따라 11명이 최초로 면허를 받았다.

1977년 광주·대구·신구·원광의 4개 전문대학과 정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치과위생과가 신설되고 1984년까지 4개의 전문대학에 치위생과가 개설되었고, 1994년 이후 많은 학교에 치위생과가 개설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습기관에 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과거 치과대학부설 의료원에 개설된 3개의 수습기관, 즉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에서 이루어지던 치위생과 교육은 종료되었다. 2002년에는 4년제 치위생과가 신설되면서 2002년 현재 27개 전문대학과 1개의 학부과정에서 치위생과 입학정원이 2,550명에 이르게 되었다(표2).

3.2.2.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현황

치과위생사의 면허취득 현황은 1971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25,712명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21,381명이 합격하여 평균 합격률은 83.2%이었다.

3.2.3. 치과위생사의 취업 현황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은 구강보건분야나 구강진료분야에서 활동하며 그 외 치과의료관련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한다.

치과위생사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량을 추계해 볼 필요가 있다. 치과위생사들은 2001년 현재 19,331명이 면허를 취득하였고, <표2>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부터 입학 정원이 동결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예측해 보면, 2006년부터는 매년 2,550명의 치과위생사가 국

표 3. 치과위생사 공급 현황

(단위:명)

분 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2020
치과위생사면허자	19,331					
졸업예정자		2,310	2,390	2,430	2,510	
2002년부터 입학정원동결시						2,550 ---->

가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평균 면허 취득율은 3년 과정의 치위생과를 졸업한 자들의 합격률, 즉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평균 합격률 85.1%를 적용하였다. 또 은퇴율²³⁾ 사망률을 적용하였다.

4. 조사성적

4.1. 치과위생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4>와 같았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항 목	빈 도	
근무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341(52.7)
	시	271(41.9)
	군	35(5.4)
	합 계	647(100.0)
결혼여부	미 혼	512(78.2)
	기 혼	143(21.8)
	합 계	655(100.0)
임 상 경 력	3년 미만	321(49.6)
	3년이상-7년미만	187(28.9)
	7년이상-15년미만	121(18.7)
	15년 이상	18(2.8)
	합 계	647(100.0)
거주형태	자 택	472(72.4)
	자 취	115(17.6)
	기숙사	38(5.8)
	친척집	25(3.8)
	기 타	2(0.3)
	합 계	652(100.0)

4.1.2. 치과위생사의 이직 실태

치과위생사의 이직 실태는 <표5>와 같았다.

(1) 이직경험은 없는 경우가 48.1%, 1회의 이직경험이 있는 자가 24.8%, 2회는 12.9%, 3회, 4회 이상 순 이었다.

(2)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치과 내 인력간에 갈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27.0%로 가장 높고 보수(16.6%), 자기개발시간 부족, 근무시간, 출퇴근 거리

표 5. 치과위생사의 이직 실태 (%)

이직경험	합 계	
없 다	310(48.1)	
1회	160(24.8)	
2회	83(12.9)	
3회	61(9.5)	
4회 이상	30(4.7)	
전 체	644(100.0)	
이직사유 ⁺	인력간 갈등	124(27.0)
	보 수	76(16.6)
	자기개발시간부족	58(12.6)
	근무시간	57(12.4)
	업 무	43(9.4)
	출퇴근거리	43(9.4)
	거주문제	24(5.2)
	기 타	34(7.4)
	합 계	459(100.0)
	이직희망기관 ⁺	보 건 소
교육기관		167(21.5)
대학병원		105(13.5)
종합병원		88(11.3)
타 직 종		77(9.9)
치과병원		58(7.5)
치과의원		30(3.9)
기 타		11(1.4)
합 계	777(100.0)	

+복수응답임

및 업무, 거주문제 순 이었다.

(3)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31.0%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 21.5%, 대학병원, 종합병원, 타직종,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 이었다.

4.2. 치과의사 조사성적

4.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6>과 같았다.

4.2.2. 치과의사 1인당 내원환자 수

(1) 치과의사 1인당 1일 평균 내원 환자 수는 23.56명이었고, 특별시 및 광역시가 21.44명, 시 지역이 25.93명, 군 지역이 31.60명으로 지역별로 유의한

23) 장현숙 외 3인, 앞의 논문, p.108.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항 목	빈 도
근무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354(59.6)
	시 209(35.2)
	군 31(5.2)
	합 계 594(100.0)
연 령	30세 이하 14(2.4)
	31 - 40세 346(58.5)
	41 - 50세 184(31.1)
	51 - 60세 29(4.9)
	61세 이상 18(3.0)
	합 계 591(100.0)

차이가 있었다(p<0.001)(표7).

(2) 근무치과 의사 수별 치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내원 환자 수는 치과 의사 1명일 때 25.37명이었고, 2명일 때 19.91명, 3명 이상 5명 이하 일 때 15.99명, 치과 의사가 6명 이상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치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내원 환자 수가 15.72명으로 치과 의사의 수별로 평균 내원 환자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표12).

표 7. 지역별, 근무치과 의사 수별 치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내원 환자 수

문 항	응답기관수	평균내원자수	표준편차	
지역별	특별시 및 광역시	347	21.44	9.88
	시	205	25.93	9.40
	군	31	31.60	9.22
	합 계	583	23.56	10.07
				df = 2 F = 25.148 P = 0.000
근무 치과 의사 수별	1명	429	25.37	10.03
	2명	101	19.91	8.87
	3명 이상 5명 이하	39	15.99	7.08
	6명 이상	14	15.72	5.27
	합 계	583	23.56	10.07

4.2.3. 치과 병·의원의 근무 인력에 관한 조사

(1) 치과 의사

조사대상자의 73.0%인 428개 기관이 치과 의사 1인이 근무하고 있었고, 치과 의사 2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17.2%인 101개 기관이었으며, 3인 이상의 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9.7%인 57개 기관이었다(표8).

(2) 1개 기관 당 구강보건보조인력 수

표 8. 1개 기관당 치과 의사 수 (%)

치과 의사 수 구분	빈 도
1인	428(73.0)
2인	101(17.2)
3인 이상 5인 이하	57(9.7)
합 계	586(100.0)

① 치과 위생사

조사대상기관 중 치과 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관은 25.5%이었고, 1인의 치과 위생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32.0%, 2인이 근무하는 기관은 20.2%, 3인 이상 5인 이하 기관은 15.9%, 6인 이상의 치과 위생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6.4%이었다(표9).

② 간호조무사 및 기타인력

간호조무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의 37.3%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았고, 1인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31.2%, 2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21.2%,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 10.3%이었다.

기타인력의 경우 무자격 보조인력, 치과기공사 등의 기타 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기관은 51.2%, 1인이 근무하는 기관은 28.9%,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은 19.9%이었다(표9).

표 9. 1개 기관당 구강보건보조인력 수 (%)

구 분	빈 도
치과 위생사	없 음 151(25.5)
	1 인 190(32.0)
	2 인 120(20.2)
	3인 이상 5인 이하 94(15.9)
	6인 이상 38(6.4)
	합 계 593(100.0)
간호조무사	없 음 221(37.3)
	1 인 185(31.2)
	2 인 126(21.2)
	3인 이상 61(10.3)
	합 계 593(100.0)
	기타인력
1 인 170(28.9)	
2인 이상 3인 이하 87(14.8)	
4인 이상 30(5.1)	
합 계 588(100.0)	

4.2.4. 치과위생사의 담당 업무와 치과위생사 중점 교육과정에 대한 치과의사의 견해

치과위생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의견으로는 환자 관리업무 25.7%, 예방업무 25.3%, 진료보조업무 24.5%, 병원관리 24.0%로 응답하였고, 중점교육을 해야할 과정으로는 환자 관리 업무 40.3%, 예방업무 24.3%로 응답하여 담당 희망업무와 중점 교육해야 할 과정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환자 관리업무에 더 많은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4.2.5. 치과위생사 양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견해

치과위생사 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은 75.9% 기관이 치과위생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9.6% 기관은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4.5% 기관이 치과위생사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10).

표 10. 치과위생사 인력양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견해 (%)

치과위생사 인력 배출에 대한 의견	빈도
치과위생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441(75.9)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114(19.6)
치과위생사 수를 줄여야 한다	26(4.5)
합 계	581(100.0)

4.2.6. 인력충원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

(1) 인력충원계획

설문에 응답한 기관 중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 기관은 59.1%, 충원계획이 없는 기관은 40.9%이었다. 이중 현재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58.4%가,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61.3%가 충원을 계획하고 있었다(표11).

표 11. 인력 충원계획 유·무 (%)

충원계획	치과위생사 근무유무		빈도
	없 음	있 음	
예	92(61.3)	255(58.4)	347(59.1)
아니오	58(38.7)	182(41.6)	240(40.9)
합 계	150(100.0)	437(100.0)	584(100.0)

$\chi^2=0.284$ df=1 P=0.522

(2) 치과위생사 충원계획 인력 수

표 12. 치과위생사 충원계획 및 인원수 (%)

치과위생사	빈도
충원계획 없음	51(14.7)
충원계획 있음	296(85.3)
합 계	346(100.00)
충원예정치과위생사수(명)	빈도
충원계획없음	51(14.7)
1	207(59.8)
2	61(17.6)
3	13(3.8)
4명이상	14(4.2)
합 계	346(100.00)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 346개 기관 가운데 치과위생사를 충원할 계획이 있는 기관은 85.3%인 296개 기관이었고, 치과위생사를 충원할 계획이 없는 기관은 14.7%인 51개 기관이었다.

치과위생사 충원 계획 인력 수의 비율은 <표12>와 같다.

(3) 치과위생사 충원 계획의 동기 및 채용시의 중점사항

치과위생사를 충원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전문

표 13. 치과위생사 충원 사유 및 채용시 중점 사항 (%)

문	항	빈도
치과위생사 충원 사유	전문 교육을 받아 더 효율적이므로	362(70.6)
	법적인 문제 때문에	69(13.5)
	기존의 다른인력과 조화를 생각하여	54(10.5)
	병원의 이미지를 위하여	18(3.5)
	다른 병의원들이 채용하니까	1(0.2)
	기 타	9(1.8)
	합 계	513(100.0)
치과위생사 채용시 중점사항	경 력	398(17.5)
	외 모	363(16.0)
	치과와의 거리(출퇴근 문제)	306(13.5)
	보 수	300(13.2)
	결혼 유무	206(9.1)
	출신학교	169(7.4)
	학교성적	159(7.0)
	자녀유무	138(6.1)
	기 타	230(10.1)
		합 계

복수응답임

표 14. 지역별, 연령별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 (%)

항 목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간호조무사와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함께 일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기 타	합 계
지역별	특별시	69(52.7)	26(19.8)	18(13.7)	11(8.4)	7(5.3)	131(100.0)
	시	36(70.6)	6(11.8)	5(9.8)	2(3.9)	2(3.9)	51(100.0)
	군	13(81.3)	2(12.5)	-	-	1(6.3)	16(100.0)
연령별	30세이하	1(33.3)	2(66.7)	-	-	-	3(100.0)
	31-40세	75(68.2)	14(12.7)	13(11.8)	4(3.6)	4(3.6)	110(100.0)
	41-50세	37(62.7)	10(16.9)	5(8.5)	5(8.5)	2(3.4)	59(100.0)
	51-60세	5(27.8)	5(27.8)	2(11.1)	4(22.2)	2(11.1)	18(100.0)
	61세이상	-	3(37.5)	3(37.5)	-	2(25.0)	8(100.0)
	합 계	118(59.6)	34(17.2)	23(11.6)	13(6.6)	10(5.1)	198(100.0)

복수응답임

교육을 받아서 더 효율적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70.6%이었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13.5%이었으며, “기존의 다른 인력과의 조화”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도 10.5%이었다. 그리고, “병·의원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라는 경우는 3.5% 이었고, 기타의 견해는 “치과에서는 당연히 치과위생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치과위생사 채용 시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력, 외모, 출·퇴근문제, 보수 등의 순서였으며, 기타 응답으로 성격과 투철한 직업의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13).

(4)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대상 병·의원 중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은 기관 151개소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14>와 같이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이었고, “간호조무사와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16.6%이었으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6.2%, “함께 일하기가 부담스러워서” 4.7%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인력을 구

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채용의 어려움은 특히 군 지역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5. 고찰 및 논의

구강보건진료생산요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가 구강보건인력이며,²⁴⁾ 구강보건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양질의 진료 생산된다.

1980년대 이후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식이 점차 사회의 개념에서 계약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환자가 진료에 참여하려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²⁵⁾ 보건 진료인력의 수급관리는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국제보건협력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과의사가 구강진료분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양질의 구강진료를 수혜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강진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진료분담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구강보조인력은 수요가 급증할 경우 조속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수급간 균형을 통한 적정선을 모색하여 수요와 공급을 합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여 기대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의 부족과 과잉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계획수급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들의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치과진료기관에서의 치과위생사 활용 및 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 및 활용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77.6%의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치과 의사의 양성 및 치과 병·의원의 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치과의사의 양성현황 및 치과병·의원의 개설 현황과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24) Alan L. Sorkin, 앞의 논문

25) 유승흠, 병원행정강의(서울 : 수문사, 1990), p.219.

치과대학은 1946년에 처음 개설되어 1980년대 이후에 급속한 양적 성장이 있어 연간 760명이 입학하고 있다. 1952년 최초의 면허 취득을 실시하여 2000년 현재 17,552명이다. 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치과의사 평균 합격률 93%를 적용하고, 치과의사의 은퇴율과 사망률을 기초로 치과의사 공급량을 추계하면 2005년에는 20,501명, 2010년 23,734명, 2020년 30,418명으로 추계된다.²⁶⁾ 199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16,790명의 치과의사 중 치과병·의원에 62.0%, 일반병원(군병원포함) 10.9%, 보건소에 4.9%가 취업하고 있어 보건소를 포함한 진료부분에 가용되는 인력은

**치위생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77.8%이었다.²⁷⁾ 이를 기초로 진료분야에 가용될 것으로 추계되는 치과의사는 2005년도에는 15,950명이고, 2010년도에는 18,465명이며, 2020년에는 23,665명으로 추계된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1967년 4명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2002년 현재 한해 2,550명이 입학을 하며 2002년 현재 21,381명이 면허를 취득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의 증가 현황을 추계해 보면 2001년 현재 19,331명이 면허를 취득하였고, 2006년부터 입학 정원이 동결된다고 가정할 때 2006년부터는 매년 2,550명의 치과위생사가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3년 과정 치위생과 졸업자들의 평균 합격률 85.1%와 자연

적인 감소율을 적용하면 2005년에는 27,535명, 2010년에는 38,385명 2020년에는 58,493명으로 추계되었다. 즉 보건소를 포함하는 진료분야의 치과의사 대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2005년에 1.26명, 2010년 1.56명, 2020년 2.36명으로 추계된다.

한국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²⁸⁾ 치과위생사 취업률을 60%로 할 경우에 2010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1998년의 입학정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되므로 더 이상의 증설 및 입학정원은 바람직하지 않고 배출된 치과위생사들이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비면허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치과위생전문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1998년의 입학정원으로 인원이 동결된다는 가정아래 진행된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과잉 공급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본연구가 진행된 2001년 현재는 1998년과 비교하여 5개교 220명의 입학정원이 증가된 상태이므로 인력의 과잉 공급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치과대학의 증원이 10% 축소가 논의되고 있고,²⁹⁾ 치과위생사는 몇몇 지역에서 신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즉 치과위생사가 취업하여 활동해야하는 치과 병·의원은 줄어들고 치과위생사는 점점 더 많이 양성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당면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 양성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양성 할 경우 몇 년 후에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치위생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모색이 필

26) 장현숙 외 3인, 앞의 논문, p.72.

27) 위의 논문, p.71,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자료, 1999.

28) 위의 논문, p.110.

29) 치의신보, "치대 입학정원 일률적 10% 감축, 치협 방침정해 세부안 만들어 복지부 제출," 제1095호 (2001. 6. 30)., "치대 정원 10% 감축案 제출 치협, 복지부에 11개 치대 모두 적용 촉구," 제1099호 (2001. 7. 28).

요하리라 사료된다.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이해나 활용도가 이직과 직업 수명에 영향을 끼치고, 치과의사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는바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치과진료기관의 74.5%에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평균 2.04명의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25.5%만이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1994년 문의 연구³⁰⁾ 47.5%와 2000년 김의 연구³¹⁾ 44.9%에 비하여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 지역의 경우는 평균 2.78명으로 군지역의 0.90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3인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기관도 22.3%이었다.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구강보조인력은 진료기관 1개소 평균 4.16명을 채용하고 있었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의원 중 38.7%는 앞으로도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인력채용의 어려움 외에 간호조무사와의 능력차이가 없는 것과 인건비의 부담, 같이 일하기 부담스러워서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간호조무사와의 능력차이가 없다³²⁾, 조무사가 치과위생사와 동등한 능력을 가졌기에,³³⁾ 간호조무사와 능력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라고³⁴⁾ 응답하였다. 과거의 연구에 비해 간호조무사와의 능력차이가 없다고 응답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인력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편적인 업무만으로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응답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또한 치과 위생사 채용 시에 중점 사항으로 경력과 외모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으며, 출신학교나 성적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황윤숙 등의 연구에서도³⁵⁾ 성격, 말씨, 태도, 외모 등이 채용 시 우선 순위로 보고되었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사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환자 관리업무, 예방업무, 진료보조 업무 등이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교에서 중점 교육해야 할 업무는 환자 관리 업무라고 응답하였으나, 문경숙 등의 연구에서³⁶⁾ 치과위생사들은 현재 행하는 업무가 환자관리 업무와 진료보조, 예방업무라고 보고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고³⁷⁾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³⁸⁾ 문혁수는³⁹⁾ 원래 간호조무사는 구강진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양성된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진료기관에서 75%에 이르게 활용하고 있어 치과의사의 구강진료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그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활용도가 다르기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인력이다. 현재의 치과진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진료 분담인력인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단순 진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기에 치과위생사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면허된 바의 충분한 업무를 발휘할 수 없는

30) 위의 논문, p.347.

31) 김영경, 앞의 논문, p.35.

32) 황윤숙, 박명숙, 임상실습 수행시 치과위생과 학생의 업무에 대한 지도 치과의사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월간 치과연구」제44권 제2호, (1998.8.), p.64.

33) 한경순.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전문화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월간 치과연구」제44권 제5호, (1998. 11.), p.57.

34) 김영경, 앞의 논문, p.38.

35) 황윤숙 외 1인, 앞의 논문, p.67.

36) 문경숙 외 3인, 치과위생사의 근무지별 업무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제2권 제1호, 2002, p.70.

3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38)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

39) 문혁수, 앞의 논문, 1994, p.358.

실정이다. 문 등은⁴⁰⁾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간의 갈등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치과위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업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교에서 연마한 기술과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들은 인력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치과 위생사들은 자신

**전문인력의 낭비와 교육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연령과 결혼에 따른 제약 조건을 줄이고
근무연한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제도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의 미래상이 제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 직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잦은 이직과 조기퇴직을 하게 되고, 인력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들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9.28시간으로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⁴¹⁾, 최근 야간진료의 증가로 근무시간의 연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진료전과 후에 정리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자기개발 시간의 부족과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 요인을 야기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는 2002년 현재 한해에 2,550명이 입학하여 매년 2,000여명이상이 배출되므로 2010년부터는 치과병·의원 1개소에 치과위생사가 2.07명으로 법정인원인 2명을 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진료보조인력은 2010년에는 치과병·의원 1개소에 6.0명으로 추계된다. 현재의 인력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 양성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경우 몇 년 후에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리라 사료된다. 치위생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

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은 잦은 이직을 하지 않고, 직업수명은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스스로도 오랜 근무를 희망하나 제반 여건들이 인력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낭비와 교육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연령과 결혼에 따른 제약 조건을 줄이고 근무연한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제도의 정착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의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의 불확실함에 의해 유발되는 인력간의 갈등이 주된 이직의 사유임으로 치과위생사들의 고유 업무가 수행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한 직종에게 편중된 자료가 제시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표본의 선정과정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근거로 조사 분석하였으나, 응답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인해 지역과 연령이 고루 분포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과거 진료보조인력 수급에 대한 타 분야의 연구자료들이 미흡하고, 연구 자료 또한 직종단체의 이기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을 위해 가능한 개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공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보고서 또한 그런 시각으로 읽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후속의 연구는 직종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객관성 있게 평가받기를 바란다.



황윤숙 정보통신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40) 위의 논문, p.72.

41) 문경숙 외 3인, 앞의 논문, p.69.